

조기 시즌...목포수협 위판 외면하는 어선들

잇단 분쟁·낮은 어가 탓
조합장 배도 제주서 위판
대형 어선 20여척 타지로
목포 수산 경기 크게 위축
어획물 실명제 도입 등 필요

목포경제를 이끄는 양대 중심축인 조선업에 이어 수산물 경기도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수산물 경기를 좌우하는 조기 위판 시즌이 시작되면서 호황기를 맞고 있으나 일부 어선들이 목포가 아닌 타지에서 위판을 본 것으로 알려져 올해 목포수협 위판 고 실적을 물론 지역경기도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특히 목포에서 거래되는 일부 조기 상자의 경우 조기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등 품질마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어획물 실명제 도입' 등 판매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목포지역 수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타 지역에서 위판을 본 대형 선박은 확인된 어선만 20여 척에 달한다. 심지어 목포수협조합장 소유의 대형 어선도 제주도에서 위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적당 1억~2억원 정도의 위판고 실적을 올린 대형 어선 20척이 타지로 이동함에 따라 수수료 4.5%만 감



최근 조기 어획시즌을 맞아 목포 동명동 선창과 삼학도 일원에서는 새벽마다 그물에서 조기를 떼어내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안해도 1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어선들이 타지에서 위판을 한다는 목포수협의 잦은 법정 분쟁과 위판 체계의 불합리에 따른 낮은 어가 형성 때문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유현 목포유자망선주협회장은 "어획량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적당 1억~2억원대를 위판하면 목포수협과 영광수협 어선가의 3000만원~40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면서 "선주의 입장에서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협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들도 "지금은 여수나 영광, 범성포 등에 위판을 했다고 있지만 조만간

진도 서망항에 위판장이 들어오면 앞으로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지금부터 목포 선창(수산물) 경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목포를 먹여 살릴 경제의 축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목포와 신안수협이 공동 운영중인 '목포활어위판장 목포수협 단독 운영'과 '어획물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기동 목포시의회 의원은 "목포 활어 위판장 운영에 대한 재계약이 내년 5월이래 운영권을 목포수협이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포시 예산으로 조성된 위판장인 만큼 목포에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시정 질문에서 목

포시장도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목포 수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타지위판을 막고 제 가격을 받기 위한 대안으로 어획물에 대한 실명제 도입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조기상자를 보면 위에는 씨알이 굵지만 아래는 씨알이 작은 눈송이(일명 알박기)로 인해 신뢰가 떨어져 제 가격을 못 받고 있다"면서 "어선명과 선주 이름,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상자마다 부착하면 알박기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어가 하락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포=임영춘·고규석 기자 lyc@

금연 '작심 두달'...담배소비세 확 늘었네

목포 올 징수액 190억 예상
금연클리닉 발길도 뚝 끊겨

연초 담뭏값 인상으로 감소했던 목포시의 담배 소비세가 지난 3월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는 등 금연열풍이 '작심 3개월'도 못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목포시에 따르면 올해 목포에서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지방세는 지난 8월 말 현재 총 99억97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83억1700만원 대비 16억 8000만원이나 늘었다. 전국적으로 금연열풍이 몰아쳤던 지난 2월에는 10억14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23억 7900만원) 무려 13억6400만원이나 줄었다. 지난 3월은 17억6400만원으로 전년도 10억1500만원 대비 7억4900만원이 증가해 기대를 모았던 금연 효과는 3개월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지방세 증가는 담뭏값 인상에 따른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4500원짜리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세 등을 포함 총 3318원으로, 담배를 하루 1갑씩 1년 동안 흡연할 경우 세급만 121만 1070원을 내게된다. 이는 9억짜리 아파트 재산세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최선희 목포시 세정과장은 "지난 1, 2월 감세 추세를 보이던 담배소비세 수입이 3월부터 전년 수준을 웃돌고 있는데, 담배 판매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추세로 간다면 연간 징수액의 지난해보다 40%이 더 걸친 19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들해진 금연열풍은 목포시보건소에서도 감지된다.

올해 초 금연클리닉을 찾는 방문객들은 하루 평균 10~20명 수준이었지만, 요즘 들어 금연 결심자의 발길도 뚝 끊겼다는 게 금연클리닉 관계자의 말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를 팝니다...대양산단에 투자하세요" 시의회, 목포역서 조기분양 적극 홍보



"목포를 팝니다. 대양산단에 투자하세요"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관광경제위원회는 최근 목포역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목포 대양산단 조기 분양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사진)

두 위원회는 대양산단과 관련된 소관위원회로, 목포시의 최대 난제인 대양산단 분양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앞장서는 등 상생의 모습을 보였다.

시의원들은 새마을호와 KTX 이용객들에게 대양산단 홍보 팸플릿 2000부를 배부하고 대양산단 투자가 지금이 적기임을 알리는 집중 홍보 활동을 펼쳤다. 행사에는 대양산

단(주) 최창호 대표이사과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 산단단지정책실 관계자 등도 함께 참여했다.

정영수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최대 현안사업인 대양산단 조기 분양을 위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일반 시민과의 총체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양산단 투자기업을 발굴·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도 분양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업종별 기업방문 등 전방위적 홍보와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대양산단은 15개 기업에서 7만9223㎡를 계약해 7.9% 분양율을 보이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복합도시 임성지구 개발사업 탄력받는다

도 도시계획심의위 조건부 승인

21세기형 주거·상업·문화·생태복합도시인 목포 임성지구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목포시는 "지난 9월 전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아 오는 12월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목포 도시개발사업단 관계자에 따르면 조건부 승인사항은 ▲토지이용계획상 용지계획, 교통 연계성 일부 제검토 ▲방재 계획 중 임성 소하천 정비계획과 연계 제검토 ▲주변지역 개발여건 고려한 도로망 제검토 등 모두 11건이다.

시는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통과되면 이달 말 임성지구 개발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11월부터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임성지구는 토지를 일괄 매입해 시의 재정수입을 올리는 방식이 아닌 주민을 위한 한지방식으로 추진되며, 일부 최소면적에 대해서는 수용방식이 적용된다. 또 민·관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O)을 설립해 민간의 창의성과 우수한 기술 자금을 도입해 공동 개발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추진된다.

한편 임성지구는 석현동과 옥암동 일원 197만㎡(60만평) 부지에 친환경적,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목포권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생산유발효과 1조414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432억원, 고용유발효과 5560명 등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예술제 개막...한달동안 축제의 도시

9개 부문 예술상 시상도

'제55회 목포예술제'가 개막했다.

목포시와 한국예총 목포지회가 주최하는 이번 예술제에서는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목포권역에서 총 30여개의 각종 행사가 펼쳐진다. 지난 2일 첫 행사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술인의 밤 및 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

지난 1981년 제정된 예술상은 총 9개 부문에 걸쳐 지역예술인 및 예술을 후원하는 제정자들이 출연해 각각 상금 200만원에서 1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이날 영예의 수상자로 남농예술문화상에 조로옥(사진작가협회)씨, 삼성출판문화상에 목포·신안 예술, 보혜예술문화상

에 김성훈(연예인협회)씨, 우하예술문화상에 주권옥(미술협회)씨, 임농예술문화상에 김연예(국악협회)씨, 성육예술문화상 무대예술상에 김다영(무용협회)씨, 성육 예술문화상 올해작가상에 정인태(문인협회)씨, 김영자 예술문화상에 정화숙(연극협회)씨, 소화예술문화상에 소민경(미술협회)씨가 선정됐다.

임정호 한국예총 목포지회장은 "예술문화상 수상자는 각 예술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공적을 이룬 후보자를 추천받아 예술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며 "예술상 수상을 체적으로 삼아 목포신안 예총은 물론 예향 목포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지역	구분	번호
지방지사 (061)	광산	062)944-0444
	군산시	063)467-2500
	정읍시	063)531-5544
	남원시	063)626-1601
시내지역	광천	366-8375
	남광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선	675-6530
	북광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	369-0583
	송하	675-68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웅봉	522-7752
	우남	512-8116
운천	371-9818	
팔곡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6804	
진월	673-1600	
첨단	973-2900	
장평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